

니체주의적 경합적 민주주의는 상탈 무폐 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김도윤 ■

요약문

본 논문은 니체에 기반한 경합적 민주주의 모델이 상탈 무폐 모델의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은 칼 슈미트 또는 니체를 사상적 원천으로 지닌다. 한국에서 자주 논의되는 무폐가 슈미트의 철학에 기반하여 자신 고유의 경합적 민주주의 모델을 구성한다. 그러나 슈미트에 근거를 두는 그 모델은 다음 네 비판에 취약하다. 첫째, 정당한 상대방과 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둘째, 적대의 존재론적 근본성과 적대 아닌 경합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일관적이다. 셋째, 그녀가 말하는 경합은 자기 보존이라는 텔로스에 갇혀 있어 실질적으로 다원적 세계를 포착하지 못한다. 넷째, 경합 유지 수단에 관한 이론적 요소가 없고, 경합을 유지할 수 있는 갈등의 정도에 대한 설명도 없다. 무폐와

*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BK21 FOUR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관리번호 : 4299990214673, 사업
팀명 : 경북대학교 철학과 갈등해결 철학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팀]

■ 김도윤 | 경북대학교 철학과

달리 코널리와 오웬을 비롯한 니체주의자들은 니체에 기반하여 경합적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한다. 필자는 니체의 텍스트와 니체주의자들의 논의를 분석 및 재구성한 후, 니체주의적 모델이 앞서 언급한 무폐 모델의 한계들을 다소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주 제 : 사회 철학, 정치 철학

검색어 : 경합적 민주주의, 갈등, 슈미트, 무폐, 니체, 코널리, 오웬

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모를 없애기 위해 과거의 여러 철학을 재조명하고 현대화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철학자의 임무이다. 슈미트와 맑스, 그리고 포스트 구조주의를 절합하여 현대적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상탈 무폐(이하 무폐)의 작업이 좋은 예이다. 무폐의 작업은 그 참신함 덕분에 기존 맑스주의, 속의 민주주의 이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한국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반면 영미권과 네덜란드의 니체주의자들이 니체를 토대로 구상한 니체주의적 경합적 민주주의가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무폐 또한 자신 저작을 통해 니체주의 모델과 자신 모델을 대결시키고 있는바, 한국에서 경합적 민주주의에 관한 깊이 있는 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니체주의 모델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니체주의적 경합적 민주주의를 소개하고 철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낸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은 근거하는 사상을 기준으로 니체 기반 모델과 슈미트 기반 모델로 나뉜다. 후자의 대표주자가 한국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무폐이다. 반면 전자 또한 경합적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함에도 국내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국내의 사회철학계와 니체 학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니체주의적 경합적 민주주의를 소개하고, 그들이 무폐 모델의 이론적 한계를 뛰어넘을 잠재력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우선 경합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철학적 요소를 설명한다(2장). 그에 기반하여 무폐의 모델을 재구성하고(3장 1절), 이론적 한계를 짚어본다(3장 2절). 다음으로 니체 텍스트 분석을 통해 니체주의적 경합적 민주주

의가 성립 가능성을 보이고(4장 1절), 니체주의 모델을 자세히 살펴 본다(4장 2절). 앞선 내용을 종합하며 니체주의 모델이 무폐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더 좋은 모델인지 견주어 본다(5장).

2. 경합적 민주주의의 세 가지 철학적 요소

현대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은 고대 그리스에서 행해진 특수한 경연인 ‘경합(Contest, Agon)’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들어진 정치·철학 이론이다. 고대 그리스의 경합은 개인적 탁월성과 시민적 탁월성 추구라는 다소간 양립 불가능할 것 같은 두 경향이 내재했던 아주 특수한 문화이다. 귀족 계급 사이에서 행해진 운동이나 시가 경연을 통한 개인의 탁월성 성취 및 영광 획득 문화가 공적 영역에 자리 잡으며 시민성 혹은 시민 정신 도야의 효과를 냈는데,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 특유의 경합 문화이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불일치와 갈등을 도덕 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무화시키지 않고,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 그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탁월함을 드높였다. 경연을 통한 개인적 탁월성 성취와 맞물린 시민성 향상이라는 경합 문화의 정신의 큰 두 축을 학자들이 계승하여 개량한 것이 현대의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이다.¹⁾ 그 개량 과정에서 슈미트 혹은 니체(나아가 푸코) 철학이 덧대어지고, 현대의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은 슈미트 기

1) 고대 그리스에서 행해진 경합에 대한 설명은 아래 논문을 참조하여 변형한 것이다. Kalyvas, Andreas., "The democratic Narcissus: The agonism of the ancients compared to that of the (post) moderns.", pp. 23-25.

반 모델과 니체 기반 모델로 나누어진다. 각기 다른 양상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은 갈등, 불일치, 경연, 경쟁 등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부정적인 것 혹은 끝내 근절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는 일반적인 정치이론 혹은 기존 정치 철학과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의 특징은 다음의 셋으로 정리된다.²⁾

첫째,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 지지자들(이하 경합주의자들)은 갈등 혹은 대립을 정치의 본성이자 고유한 성격으로 본다. 극단적인 경우엔 이 세계가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고도 말한다. 어쨌든 핵심은 다양한 가치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정치를 이루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치라는 것은 힘, 권력, 또는 헤게모니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고, 정치에서 완벽한 화해나 화합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갈등은 정치라는 여정 속에서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을 억압하려 드는 순간 정치적인 것이 위협받게 되고, 그 결과 거짓된 화해 상태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양한 고유의 가치들은 억압받는다.

둘째, 그들은 정치의 우발적 성격을 강조한다. 정치의 우발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것은 고전적 진리 개념에 대항하여 “사회적 가치나 진리들은 우연으로 성립된 것이며, 지속적인 의의제기에 열려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Paxton, 2020: 39). 이는 지배적 서사를 통해 차이를 위협하는 보편적 진리, 잠재적으로 어떤 것을 배제하는 중립적 혹은 이성적 접근법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경합주의자들에 따르면 정치적인 영역은 정향되어

2) 경합적 민주주의의 철학적 공통 요소를 언급한 셋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팍스톤의 설명에 따랐으나, 세 요소를 설명하는 방식은 본 논문의 의도에 맞게 수정되었다. Paxton, Marie., *Agonistic democracy: Rethinking political institutions in pluralist times*, pp. 29-54.

있는 일련의 관점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지, 중립적이고 정향되지 않은 가치 따위는 없다. 이렇게 현존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절대적이지 않다고 거부하고 그에 도전함으로써 시민들은 지배적 가치들에 대해 도전하고 재평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보편의 이름 아래 배제되던 차이나는 특수들을 되돌아볼 수 있으며, 현 상태가 언제나 우연으로 구성된 것인바 그것은 언제나 역전될 수 있고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셋째, 그들은 시민들의 상호의존성의 필연성을 역설한다. 그들에 따르면 선/악 개념처럼 한 개념은 다른 관련된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되고 만들어진다. 개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아주 다양한 것들이 대립 관계 속에서만 이해되는데 시민들 각자가 가진 가치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인간은 사회라는 관계망 안에서만 지내는 경우에만 시민으로 인정되므로, 시민 각자는 서로에게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모든 시민이 갖는 상호의존성의 필연적 성격에의 강조는 차이뿐만 아니라 통합 또한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타자들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생각은 나와 다른 다양한 것들을 수용할 근거가 되므로 시민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나의 정체성이 차이나는 타자에 기반한다는 이러한 견해로 인해 경합주의자들은 차이를 강조하고 다원주의를 강하게 지지하면서 공동체성 또한 도외시하지 않는다.

3. 상탈 무폐의 경합적 민주주의 모델

지금까지 설명에 기반하여 상탈 무폐의 경합적 민주주의 모델을 설명하려 한다. 무폐의 경합적 민주주의 모델은 다른 모델들보다 한

국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그녀 모델이 전통 맑스주의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는 동시에 현대의 사상적 조류인 포스트 구조주의를 절합하면서 등장한바 좌파의 새로운 이론적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꾸준히 논의됐기 때문이다. 이미 무페의 철학 전체를 상세히 다루는 많은 텍스트가 한국에 존재하기에 본 논문은 그녀 모델을 살피기 따지지 않고, 그녀의 사상적 토대인 슈미트 철학을 경유하여 경합적 민주주의의 세 철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그녀 모델을 재구성할 것이다. 그 후 그녀 모델의 문제점을 짚는다.

1) 무페 모델의 경합적 요소와 슈미트적 토대

무페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적대적 구별이 정치적인 것의 본질이라는 칼 슈미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그녀 고유의 모델을 전개한다. 이 때문에 그녀 모델이 슈미트 기반(Schmittian)의 경합적 민주주의인 셈이다. 슈미트에 따르면 정치적인 것의 본질은 합이나 화해 형성이 아니라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적’은 일상적 용법과 달리 도덕적·미적 영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과 단순히 갈등하는 상대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적 개념을 존재론의 차원에서 서로에게 낯선 타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존재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질적이기에 자연스레 갈등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놓인 자들은 ‘적이 각자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고 자기 보존을 위해 타자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슈미트 철학의 핵심이다(슈미트, 2012: 39-40). 무페는 이러한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 개념이 가진 존재론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비판적 방식이기는 하나 슈미트의 이분법을 받아들인다는 점은 무

페 모델이 시민들의 상호의존성에 기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슈미트의 ‘친구/적’을 ‘우리/그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슈미트의 존재론에 대입해 설명해보자면 정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구별되는 그들이 있어야 하고, 우리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닌 그들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 무페의 존재론이다. “모든 정체성은 관계적이고, 또 각각의 모든 정체성의 실존 조건은 어떤 차이의 긍정, 즉 ‘구성적 외부’와 다름 아니다(무페, 2007: 13). 쉽게 말해, 차이(다원성)가 동일성의 근거가 되고, 이 차이로 인해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³⁾ 그러나 무페가 보기에 슈미트의 이분법에 따른 적대주의(antagonism)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다원성을 옹호하는 민주주의 모델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문제가 있다(무페, 2020: 215). 이 문제를 피하고자 무페는 슈미트와 달리 이중 구별을 도입한다. 그녀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과 우리와 의견은 달리하지만 제한된 틀 속에서 경연하는 ‘정당한 상대방(그들)’을 구분한다. 정당한 상대방은 “자신들의 갈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이런 갈등이 조절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응해 일련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자이다(Paxton, 2020: 63).⁴⁾ 그 결과 경합은 하나의 정당한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슈미트의 이론이 잠재적으로 가진 민주주의의 파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갈등의 존재를 모두 인지하는 상황 속에서 일시

3) 이 부분에서 속의민주주의 접근법과 그녀 모델이 결정적으로 대립한다. 그녀와 속의민주주의 접근법 모두 다원성(차이) 존재를 부정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전자는 다원성으로 말미암은 갈등을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고, 후자는 다원성을 단지 가치론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4) 공유된 가치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상호의존성을 논한다는 점에서 무페의 경합적 민주주의는 속의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와 공통점을 갖는다.

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한계 없는 극단적 다문화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을 내세우고 그 속에서의 정당한 경합을 주장하며 무폐의 접근법은 적대주의 아닌 경합주의로 자리매김한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무폐 모델이 ‘우리/그들’이라는 존재론에 기반한다는 사실, 즉 우리가 우리 아닌 그들에 의해 정초된다는 사실은 우리 삶에 갈등과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녀 표현에 따르면 이 세계에는 “합리적 해결책이 전혀 없는 갈등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부정성은 구성적이고 결코 극복될 수 없다(무폐, 2020: 204).” 즉, 갈등존재론이라는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의 세 철학적 요소 중 첫 번째 것을 무폐 모델 또한 갖고 있다. 한편 현재의 질서가 갈등을 매개로 구성된 것이라면, 그것은 초월적 혹은 불변하는 확고한 토대에 기초한 가치 질서가 아니다. 즉, 현재 존재하는 가치 질서는 대립하는 갈등 속에서 얻어진 일시적인 승리의 결과물, 토대 아닌 토대에 기반한 우발적 산물일 뿐이다. “모든 사회 질서는 궁극적 합리적 토대를 결여한 권력 관계들의 우연적 절합”에 불과하다(무폐, 2020: 205). 그러니 무폐의 모델이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의 철학적 요소 중 남은 하나인 정치의 우발적 성격도 기초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무폐 모델의 이론적 한계

이번 절에서는 무폐 모델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을 몇 가지 훑아 보도록 한다. 특히 그녀 모델의 제도적·실천적 영역보다는 이론적 영역에 집중할 것이다. 비판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셋은 무폐가 슈미트를 토대로 삼은 이상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합의 작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상술했듯이 그녀는 자신의 지적 기반인 슈미트와 달리 우리 아닌 그들을 정당한 틀 내에서 경합이 가능한 자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정당한 상대방과 적 둘로 다시 나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상대방과 정당하지 않은 적을 나누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재하다. 어떤 사안에 대해 갈등이 빚어졌다고 가정하자. 이때 시민단체와 정부가 정당한 경합에 대한 각기 다른 기준을 주장한다면, 경합이 이루어지는 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경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대만이 남을 뿐이다. 이를 타개할 방도는 정당한 틀을 마련해주는 초월적 주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모든 것이 정치적이며 정치적인 것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슈미트·무페의 기본적 구도와 모순된다. 특히나 포스트 구조주의의 세례 속에서 전개하는 무페 자신 고유의 이론과도 대치된다. 이렇게 정당한 틀을 결정하는 주체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자연스레 경합주의와 적대주의의 구분의 모호함으로 이어진다. 경합을 마련하는 틀의 정당성이 흔들리기에 자연스레 경합과 경합 아닌 갈등인 적대의 구분 또한 흐려지기 때문이다. 그녀가 슈미트의 이분법을 받아들이면서도 슈미트에 반하는 결정적 이유는 순전한 적대로는 다원주의와 접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만일 경합과 적대의 엄격한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무페 모델 자체가 이론으로써의 지위를 잃게 된다.

사실 무페 모델이 가진 경합과 적대라는 구별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은 어쩌면 그녀가 슈미트 이론을 받아들인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녀 자신은 “슈미트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반대하며” 다원성의 확보를 위해 적대를 경합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Mouffe, 2005: 14). 즉, 그녀가 다소 반-슈미트의 노선을 따르더라도 그녀가 설파하는 ‘우리/그들’ 사이의 경합적 갈등이 적대라는 근절 불가능한 갈등 위에 세워진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런

데 존재의 차원에서 논해지는 적대적 갈등에 기반하면서도 적대적이지 않은 경합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는 적대적 갈등(혹은 적대주의)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모호한 방식으로 말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녀가 자신 모델의 기반을 설명할 때에는 슈미트 이론에 힘입어 “적대주의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라며 강력한 어조를 동반하여 친구/적이라는 갈등 관계를 존재의 차원에서 얘기한다(Mouffe, 2005: 16). 그런데 자신 모델이 지향하는 바를 설명할 때에는 “친구/적 구분이 정치적인 것을 구성하는 적대적 차원을 표현하는 단지 하나의 가능한 형태”라고 약한 어조를 동반하여 논한다(Mouffe, 2005: 16). 이러한 이중적 표현 방식 덕분에 무페는 적대와 경합 모두를 논의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그녀의 적대적 갈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어찌면 텅 빈 기표에 불과하다.⁵⁾

설령 무페의 말대로 적대 아닌 경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슈미트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무섭고 당혹스러운 공상의 산물”로 이해할 것을 거부하고 “정치적인 사상체계의 기본전제로서 이해”하길 권한다(슈미트, 2012: 87). 이어 그는 정치적 통일체는 다른 통일체에 의한 존재론적 절멸의 위협을 직면하는 적대적 상황에서 제대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즉, 슈미트의 철학은 자기 보존을 핵심으로 하는 홉스적 힘 개념에 따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슈미트에 의존하는 무페의 경합도 “자기 보존이라는 고정된 텔로스”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주장과 달리 그녀의 모델은 “다

5) 무페의 모호한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고하라. Menga, Ferdinando G., "Conflicts on the threshold of democratic orders: A critical encounter with Mouffe's theory of agonistic politics", pp. 544-548.

양한 삶의 형태들과 정치적 정체성의 질적인 측면”을 포착하는 데 실패한다(Siemens, 2015: 95-97).

심지어 지금까지 제시된 문제들에 맞서 무폐가 성공적으로 자신 모델을 방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무폐는 둘 사이의 갈등이 적대 아닌 경합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을 가능케 할 장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무엇인지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좋은 이론적 설명은 제공되지 않는다(August, 2022: 10-12).⁶⁷⁾ 예컨대, 적대가 아닌 경합이 이

6) 어거스트는 본 논문에서 언급한 것 말고도 짐멜, 코저(Coser) 등의 갈등 사회학 이론(sociological conflict theory)에 의존하여 그녀 모델의 이론적 공백에 대해서 날 선 비판을 제기한다.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으로 인한 집단 간의 결속력(intergroup cohesion)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정동의 역할과 동일성 형성은 그룹 내의(in-group) 결속력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갈등-지배의 구조 또한 조장하는데 이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집단 내의 역할에도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셋째, 갈등들과 그것이 발산하는 영향들의 다양성을 과소평가한다(August, 2022: 8-10).’

7) 한편 어거스트는 갈등에 관한 무폐의 얕은 이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 없이 루만을 잠시 언급하고 넘어간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본 논문의 맥락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질치를 통한 정당화』에서 루만은 갈등을 다루는 절차 속에서 마련되는 합의는 완전한(real)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무폐를 포함한 경합주의자들과 유사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루만은 『사회적 체계들』에서 구 사회학이 갈등의 보편성은 외치나 그에 대한 구체적 서술은 결여했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갈등의 확대가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이유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무폐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어낼 수 있다. 루만은 구 사회학과 무폐와 달리 적합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그에 따르면 갈등은 기대들이 소통되었으나 수용되지 않는 상태(‘아니오’)라며 “갈등을 소통의 실패로 소급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이다(루만, 2020: 734). 따라서 갈등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회체계의 상승하는 복잡성에 부합하게 더 많은 모순이 소통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사회적 변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루만, 2020: 747).

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되어 보이나, 그러한 태도가 사회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돕는 어떠한 개념적 장치도 제공되지 않는다. 하물며 존중하는 태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그들 사이의 적대라는 존재론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어떠한 법적 제도나 규범도 부차적일 뿐이다(White, 2022: 63).

위 비판에 대해 자비의 원칙을 적용하여 무폐의 입장에서 반론을 가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그녀는 미국 자유주의와 그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다룬 논문에서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철학의 중심 과제는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접합”이라고 선언한다(무폐, 2012: 69). 과제 수행 방안으로는 “시민 덕 및 정치 공동체의 정체성 실종”을 문제 삼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을 따라 “시민 공화주의 전통”의 복각을 제시한다(무폐, 2012: 47). 구체적으로, 그녀는 시민 공화주의 전통 중에서 “개인 고유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유관을 제시”하고, “이 개인적 자유를 행사할 수 없게 할 강제와 예측을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특정한 공공 기능들을 수행하고 필요한 덕을 계발”하도록 요구하는 마키아벨리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무폐, 2012: 69). 이러한 무폐의 자유를 경합주의의 맥락에 적용해본다면, 시민적 덕성의 계발을 통해 적대적 갈등을 경합적 갈등으로 승화시키고, 경합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져서 적대적 성격을 띠지 않도록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 주장일 것이다. 이렇게 그녀 모델을 자비롭게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시민적 덕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의 계발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세심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비판은 유효하다. 언급한 논문에서 그녀 자신도 이론적 공백을 인정하듯이 “이런 논증 노선은 분명히 더 발전해야 한다”라며 자신 이론의 추후 과제를 남겨두지만, 이후 출간된 그녀 저작에서 과제에 대한 답변은 부재한다(무폐, 2012: 69).⁸⁾

4. 니체주의적 경합적 민주주의 모델

니체주의 모델은 니체 철학에 기반하여 구상된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 모델이다. 니체주의 모델은 경합적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 장치를 기준으로 자기 절제(self-restraint) 접근법과 상호 균형(counter-balancing) 접근법으로, 사회가 경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완벽주의적(perfectionist) 접근법과 포괄적(inclusive) 접근법으로 나뉜다.⁹⁾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니체주의 모델 이론가들은 니체가 슈미트·무페와 마찬가지로 갈등을 중요시하고, 정치의 우발적 성격과 시민들의 필연적인 상호 의존성에 대해 강조했다며 그에 기반하여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을 전개한다. 이에 더해 그들 모두 「호메로스의 경합」에서 경합에 대한 니체의 언급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하기에 해당 텍스트를

8) 비록 포퓰리즘 주체 전략의 맥락에서 가해진 비판이긴 하나, “타협주의적, 순응적”이고, “저항 능력이 소멸한 대중”이 “폭민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현대 민주주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임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는 공박에 대해서도 무페는 같은 이유로 성공적으로 답변하지 못할 것이다(한상원, 2020: 129).

9) 피어슨은 니체주의 모델을 사회를 유지하는 장치를 기준으로 ‘자기 절제 접근법’과 ‘상호 균형 접근법’으로 나눈다(Pearson, 2018: 106-110). 하탐(Hatab)과 코널리(Connolly)가 전자에 속하고, 지멘스(Siemens)와 호닉(Honig)이 후자에 속한다. 팩스톤은 경합을 통해 사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을 분류한다. 팩스톤의 분류에 따르면 무페 모델은 ‘적대적 접근법’에 속하고, 니체주의적 모델은 ‘완벽주의적 접근법’과 ‘포괄적 접근법’으로 재차 나뉜다(Paxton, 2020: 55-77). 오웬(Owen)이 전자의 대표주자로, 코널리와 툴리(Tully)가 후자의 대표주자로 소개된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니체주의적 접근법에 대한 팩스톤의 구분을 따르지 않는다. 팩스톤 본인도 인정하듯이 완벽주의적 접근법과 포괄적 접근법이 상당히 비슷하여 양립 가능할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⁰⁾ 1절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니체 철학이 2장에서 언급한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을 지탱하는 세 철학적 요소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보일 것이다. 2절에서는 세 철학적 요소를 지닌 니체를 토대로 삼는 니체주의 모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1) 니체 철학의 경합적 요소: 「호메로스의 경합」을 중심으로

니체는 경합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그리스적 근본사상”이고, 그러한 “그리스적인 것을 배반”하는 경우 “증오와 파괴욕의 소름끼치는 야만성의 심연”이 드러난다고 강조한다(HC, KSA 1: 781-792).¹¹⁾

10) 니체는 역사가 진행되며 가치의 위계를 질서 짓는 중심축(axes)이 변화하는데 그에 맞추어 어떤 가치는 보존되고 또 어떤 것은 버림받는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는 인간 존재가 본성적으로 선택적으로 가치(의미)를 부여하는 자라고 여겼다. 니체는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뒤엉킴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곤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도덕성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많은 역사가는 당대에 유행한 다윈의 진화론적 생물학에 기대어 도덕성의 역사를 설명했다.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이타성이라는 가치를 택했고, 그것이 도덕, 법, 사회 발전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은 적대성으로, 문화적 중심축은 이타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하지만 니체는 도덕의 자연사를 설명하는 두 중심축이 상극의 것일 경우에 그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인간들은 고통받는다며 새로운 분석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두 중심축을 모두 경합에 두고 있는 고대 그리스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Acampora, Christa Davis., *Contesting Nietzsche*, pp. 15-17.

11) 니체의 저작을 인용할 경우, 독일어 원전인 KSA(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Bänden)에 대한 필자의 번역에 의존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의 국문 번역본들을 참조했다. 앞으로 니체 저서는 제목의 약어와 고유 번호, KSA 전집의 권수 그리고 페이지를 명기하여 인용한다. HC는 「호메로스의 경합」의, GM은 『도덕의 계보』의 약어이다.

그가 보기에 고대 그리스 사회는 인간 본성과 문화를 모두 경합과 연결했기 때문에 사회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여타 사회는 그렇지 않았기에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를 띠었다. 즉, 니체 철학에서 경합은 사회의 건강함을 보장하는 요소로 제시되고 그것이 수행되지 않는 사회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니체의 이러한 발언은 정치가 경합의 장을 마련하지 않아 그에 기반한 정치적 동일성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 사회가 쇠퇴한다고 지적하는 무페와 상당히 유사하다(무페, 2020: 212).

그는 “모든 재능은 싸우면서 만개해야 한다”라는 구절을 통해 경합이 개인의 재능 발현에 중요하다면서도 “고대 그리스인들이 행한 투쟁적 교육의 목표는 전체 시민의 안녕, 국가 공동체의 안녕”이라며 고대 그리스에서 경합의 목적을 공동체와 연결한다(HC, KSA 1: 789).¹²⁾ 그러나 니체는 경합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단순히 선언하지 않았다. 그는 통상 한 명으로 여겨진 분쟁, 갈등, 전쟁, 질투, 시기의 여신이자 원천인 에리스 여신이 사실 두 명이라며 신화적 비유를 통해 자신 주장을 강화한다(HC, KSA 1: 786-787). 그의 분류에 따르면 첫째 에리스는 상대방의 절멸을 목표로 하는 적대적 섬멸전(Vernichtungskampf)의 여신인 반면 둘째 에리스는 경연 상대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선의의 경합(Wettkampf)의 여신이다.

에리스를 둘로 나누면서 니체는 경연 또한 목적을 기준으로 둘로 나누고 있다. 상대방의 절멸을 위해 행해지는 적대적 섬멸전과 자기 자신을 상대보다 뛰어난 자로 여기기 위해 행해지는 창조적인 경합이 바로 그것이다. 목적을 달리하는 두 경쟁은 결과주의적이냐 아니

12) 이에 관한 자세한 주석과 해설은 아캄포라의 주석서와 편집본을 참고하라. Acampora, Christa Davis., *Contesting Nietzsche*, pp. 18-49; Acampora, Christa Davis., “Homer’s Contest”, 1996.

나를 기준으로도 구분된다. 적대적 섬멸전은 목적이 자기 보존 및 타자 절멸이기에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과정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단지 목적 달성이라는 결과만이 고려된다. 반면 탁월성과 관련된 경합인 경합은 사정이 다르다. 예컨대 우리는 탁월함을 증명하는 자리에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승리한 자보다 고된 노력 끝에 자신의 탁월성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패배한 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러니 경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 달성만이 아니다. 탁월함을 향한 분투 과정도 경합에서는 인정받는다. 이는 패배한 경합 참가자들이 다시 경합에 도전할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 심지어 경합에서 승리한 자 또한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로 인해 완전한 탁월성을 갖추지 못했기에 여전히 자신을 극복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경합은 끝없이 존속되고, 최고의 가치는 계속해서 뒤바뀌고 역전된다. 탁월성을 강조하는 니체 철학은 결국 경합의 영속성, 나아가 현존하는 가치들의 우발적 성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목적이 다른 두 경연은 사회적 역할 또한 달리한다. 섬멸전의 경우 탁월한 자를 억누르는 형태를 취하기에 탁월한 자를 능가하는 욕구와 타인에 대한 긍정과 같은 에토스(ethos)는 사회에서 존속할 수 없다. 반면 경합이 행해지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에토스가 확보될 수 있다. 우선 경합 참가자들은 탁월성을 증명하려는 경합의 장에 참가해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수 있고 승리를 통해 개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탁월성을 증명해주는 장인 경합은 나를 둘러싼 타인의 존재 덕분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내가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타인들이 그 경쟁을 경합이라고 인정해야만 나의 승리가 경합적 승리라는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탁월성과 개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동체성(타자 존재)에 대한 긍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합의 결과로 발생한 탁월한 가치는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정립되고, 또 그러한 공동체의 가치

기준에 발을 딛고 경합 참가 예정자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개인성(개별성)과 공동체성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경합을 긍정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통념과 달리 니체 철학이 개인주의적 철학이 아니라 타자 존재와 공동체를 긍정하고,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의 마지막 철학적 요소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존성을 강조하는 철학임을 엿볼 수 있다.¹³⁾

2) 니체주의 모델의 특징

문헌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경합과 관련한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가장 탁월한 가치로 인정받도록 분투해야 하고, 경합에서 승리한 가치는 사회 전체 차원으로 확대되어 지배적 가치로 정립된다. 둘째, 경합에서의 승리를 위해 경합 참가자들은 탁월성을 계발해야 하고, 끊임없는 경합으로 인해 공동체 또한 진일보할 수 있다. 셋째, 경합 과정에서 개인적 탁월성뿐만 아니라 타자 존재에 대한 인정과 같은 에토스 증진이라는 사회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코널리와 오웬 등의 니체주의자들은 「호메로스의 경합」에서 드러나는 경합, 탁월성, 다원성에 대한 니체의 긍정에 가치와 관점들을 탈맥락화하는 철학적 시도와 이성 중심주의적 철학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결합하여 현대적인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을 구축한다.

코너리는 확고부동한 도덕 규범과 초월적 진리 등을 거부하고 동일성에 의해 억압받던 차이, 모호성, 우발성 등을 세계를 구성하는 필연적인 요소로 긍정하는 니체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에

13) 공동체주의적 니체 해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김도윤, 「니체 철학의 사회철학적 재구성 흐름에 대한 비판적 점검: 공동체주의와 대안적 독법을 중심으로」, 2023.

더해 그는 주체가 주체 아닌 것(차이 존재)을 거부하고 자신을 보편화하려는 투쟁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이지만, 차이 존재는 세계의 필연적 요소이기에 그것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헛되다고 주장한다. 나와 투쟁하는 차이를 제거하기보다는 차이의 근원적 성격을 인정하고 투쟁을 덜 폭력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차이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며 코널리는 가치와 신념을 진리 혹은 보편성에 뿌리 내리려는 시도가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행위인 정치에 해롭다고 여긴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것과는 다른 합리적 가능성이 있음”을, 현재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기에 나와 다른 관점과 가치를 지닌 타자와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Paxton, 2020: 72-73). 동시에 코널리가 주체의 투쟁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또한 무폐와 마찬가지로 정치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교류는 경쟁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코널리가 보기에 차이 존재와 경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만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 혹은 정치적 결과물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특정 가치의 권력 독점을 방지하며 점진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에리스를 섬멸전과 경합으로 나눈 니체를 따른 이상 코널리는 현실 정치에서의 가치 경쟁이 어떻게 섬멸전이 아닌 경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해야만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코널리는 ‘경합적 존중(agonistic respect)’ 또는 ‘다원성에 대한 에토스(ethos of pluralisation)’ 향상이라는 답변을 내놓는다(Connolly, 1995: 16).¹⁴⁾ 그에 따르면 경합적 존중이란 경쟁하나 대안이 될 수

14) 코널리는 다양한 가치들에 열린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무언가를 선불리 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있는 정치적 가치에 대해 모두가 열린 태도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의미한다. 코널리가 논하는 경합적 존중은 ‘너도 맞고 나도 맞아’라며 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자세(liberal toleration)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정치 과정에서 지배적인 가치를 비판하며 현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하여 개선해야 하기에 타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존중하는 자세로 경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자면 코널리의 니체주의 모델은 주체가 자기 자신을 비판적 평가의 대상으로 두는 동시에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경우 경합을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 탁월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한편 코널리는 니체 철학에 의존하여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을 만들면서도 니체가 탁월함을 귀족주의적 맥락에서 논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Connolly, 1993: 159).¹⁵⁾ 니체가 말하는 탁월함의 획득, 즉 내면의 거리의 파토스(pathos of inner distance)가 주인-노예 계급 관계를, 즉 정치·사회적 형태의

비판적 응답성(critical responsiveness)을 갖추길 촉구하기도 한다(Connolly, 2002: xxix).

- 15) 니체의 경합 개념이 귀족주의와 연결되어 있기에 니체주의 모델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다른 비판도 있다. 비판에 따르면 부르크하르트에게 영향을 받은 니체는 그리스 전 문화영역에 걸쳐 행해진 경합 일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소수의 귀족(고귀한 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경합 경쟁에만 관심을 가졌다. 즉, 니체는 평민(일반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합과 귀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합을 구별하고 후자에만 관심을 가졌으니 니체 철학으로는 평민에 관한, 즉 민주주의적 경합 모델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니체의 관심사가 실제로 귀족들의 경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민에 관한 이론을 구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해당 주장은 논리적 비약을 담고 있다. 심지어 저자 본인도 니체 철학 내에서 평민의 경합 없이는 귀족의 경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Morar, 2022: 238).

거리의 파토스(pathos of distance in its outer, socio-political form)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맥락에서 기술하자면 탁월성 획득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경합의 장은 경합적 존중을 요구하는데, 경합적 존중이 주인-노예 위계 관계에 기반한다는 것이 니체주의 모델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웬은 코널리의 니체주의 모델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니체 철학이 계급적 맥락에서 논해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며 자신 고유의 니체주의 모델을 만들어낸다. 오웬은 니체 철학에 스며들어 있는 귀족주의가 실제 주인-노예 계급과 관계가 없다는 자신 주장의 근거로 “귀족과 노예라는 대립하는 가치들의 투쟁이 ... 정신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구절을 제시한다(Owen, 2008: 221; GM1 §16, KSA 5: 285). 그의 주장처럼 해당 구절에서 니체는 “문자 그대로의 귀족과 노예 간의 투쟁 자체가 존재했더라도, 그것은 내면화되고 정신화된 갈등으로 오래전에 대체”되었고, “우리 각자의 내부에서 귀족(적 충동)과 노예(적 충동)이 지배와 우세를 위해 경쟁한다”고 말한다(콘웨이, 2022: 90). 따라서 코널리의 주장과 달리 니체에 입각한 경합적 민주주의를 펼치기 위해 니체 철학을 개량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오웬은 코널리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에 이어 니체가 귀족과 노예를 구분하는 정신적 기준이 ‘자율적 주체(또는 주권적 개인; souveraine Individuum; autonomous agent)’ 여부라며 자신 주장을 구체화한다(GM2 §2, KSA 5: 293). 오웬의 니체 해석에 따르면 자율적 주체는 “법칙에 지배받는 자”인데, 그 법칙의 구속력은 “이성적 존재로서 주체가 그것을 법칙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며, 또 그것에 찬동할 때 발생한다(Owen, 2013: 72-77).” 그렇다면 오웬 모델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자율적 주체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율성은 어떻게 증진되는 것인지 니체적 맥락에서 설명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는 니체가 자율적 주체를 “운명에 저항하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킬 정도로 자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약속하는 사람”으로 설명하는 구절을 제시한다(GM2 §2, KSA 5: 294). 해당 구절에서 자율적 주체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 따위가 존재하는 우발적 세계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한 탁월성을 보유한 자, 자신의 탁월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자’로 나타난다(Owen, 2002: 113-119). 즉, 자율적 주체는 자신의 탁월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또 외적 상황에 저항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도 있는 자기 통치 능력을 갖춘 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자율성 나아가 결합적 존중은 ‘자신이 찬동하는 바에 경의를 표하고’, “자기 규율, 자기 감독 능력 확보”와 같은 자기 통치 행위를 통해 찬동하는 바를 행동으로 체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확보된다(Owen, 2013: 77).

동시에 그는 가치의 맥락 의존성에 대한 니체의 강조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 찬동하는 것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하여 자기 극복을 이뤄내는 것도 자율성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Owen, 2008: 221).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자기 자신에게 배치함으로써 자신이 찬동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더 잘 판단”하는 자세를 요구함으로써 오웬은 자율적 주체를 구성하는 환경적 요소도 제시하는 셈이다(Owen, 2013: 79). 구체적으로 말해, 자신이 찬동하는 가치를 다른 것과 견주어보는 이러한 자세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문화가 정착된 공동체”에서 획득 가능한 것이다(Owen, 2013: 같은 곳). 물론 오웬은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만으로는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다양한 관점들 사이의 결합을 이루게 함으로써 자신이 찬동하는 가치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Owen, 2013: 80).¹⁶⁾

16) 탁월성을 타자에 대한 열린 태도와 연결하는 오웬의 니체주의 모델은 자유주의적 속의 민주주의(이하 속의 민주주의)와 결합적 민주주의의 차이를

5. 니체주의 모델은 무폐 모델을 넘어서는가?: 무폐 의 네 가지 한계를 중심으로

그렇다면 니체주의 모델은 무폐 모델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가? 3장을 통해 훑어본 무폐 모델의 한계는 다음의 넷으로 정리된다. 첫째, 정당한 상대방과 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둘째, 적대의 존재론적 근본성과 적대 아닌 경합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일관적이다. 셋째, 무폐가 말하는 경합은 자기 보존이라는 텔로스에 간혀 있어 실질적으로 다원적 세계를 포착하지 못한다. 넷째, 경합 유지 수단에 관한 이론적 요소가 없고, 경합을 유지할 수 있는 갈등의 정도에 대한 설명도 없다. 마지막 문제를 제외하면 모두 무폐가 슈미트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니체주의 모델은 무폐와 달리 앞선 세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있다. 반면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니체주의자들은 정면으

잘 드러낸다. 많은 경우 경합적 민주주의와 속의 민주주의를 ‘경합이나 합의냐’라는 틀 속에서 대립시키지만, 통념과 달리 경합적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타자와의 경합을 통해 일시적 합의를 이룬다고 말하기에 합의를 배제하지도 않고, 속의 민주주의 또한 “관점의 다양성이 속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찬성과 반대 논변들의 제기”, 즉 “경합적 논변(competing arguments)”의 중요성을 인정한다(피치킨, 2020: 47; 82-83). 그렇기에 두 정치사상의 상이함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확실해지는데, 타인에 대한 열린 태도와 시민들의 상호의존성이 그 열쇠이다. 오픈 모델에서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탁월성 개발이라는 공동 과제 수행을 위해 그것들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나, 속의 민주주의는 그것들을 ‘단지 가치론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Fossen, 2008: 18-20). 이러한 상이함은 니체주의 경합적 민주주의는 정치와 윤리의 영역을 상당히 가깝게 두는 반면 속의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로 맞서야만 하는데, 그들은 경합적 존중과 도편추방제의 이념을 내세워 답변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니체주의자들의 답변이 만족할만한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니체주의 모델이 무폐의 것보다 이론적으로 더 탄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보완해야 할 한계점들이 존재함을 지적할 것이다.

니체주의 모델이 무폐 모델이 겪는 정당한 정치 주체 구분의 모호함 문제 제기를 피해갈 수 있는 이유는 비교적 명료하다. 무폐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쟁점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투쟁 속에서 우리/그들 구분에 유동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정당한 상대방/적이라는 구분 틀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 슈미트에 기반하여 정치 행위 권리에 관한 경계를 도입하는 무폐와 달리 코널리와 오웬 등의 니체주의자들은 경계를 도입하지 않는다. 무폐는 ‘민주와 평등을 추구하는가?’와 같이 상당히 모호한 기준을 기준으로 정치 주체들을 정당한 상대방과 적으로 경계 짓는데, 무폐와 달리 니체주의자들은 정신의 고귀함을 기준으로 주체 내부를 경계 지을 뿐이다.

‘적대적 갈등에 기반하면서도 적대적이지 않은 경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두 번째 문제도 니체주의 모델은 적대적 갈등에 존재론적 근본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다. 적대적 근본성을 부여하는 슈미트를 사상적 기반으로 받아들인 무폐는 어쩔 수 없이 적대 위에 적대 아닌 경합을 구축하는 자기당착에 빠지고 말았다. 니체 또한 무폐와 마찬가지로 적대적 섬멸전과 경합을 구분하고 있지만, 적대적 형태를 취하는 섬멸전에 근본적 성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달리 말해, 니체주의 모델은 경쟁의 형태를 둘로 나누나 존재론적 위계질서를 부여하지는 않기에 이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

니체주의의 모델은 자기 보존을 텔로스로서 삼는 적대적 섬멸전이 아닌 경합에 기반하여 자신 이론을 구축하기에 무폐 모델과 달리 세

번째 문제를 피하며 다양한 삶의 형태들과 정치적 정체성의 질적인 측면을 포착할 수 있다. 앞선 4장 1절에서 살펴봤듯이 니체가 고대 그리스의 경합에 주목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 보존이 아니라 탁월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창출을 위해 경쟁하기 때문이다. 즉,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힘을 자기 보존을 위해 타자를 절멸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탁월한 자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그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자신과 가치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니체주의 모델은 이러한 긍정적인 방식의 힘 사용 방식, 즉 자기 보존과 반대되는 자기 극복적 힘 개념을 이어받고 있다. 덕분에 니체주의 모델은 다원적 정치 사회 속에서 “자신 외부의 삶, 정치적 형태들 그리고 가치들의 갈등을 자기 변형을 위한 자극제”로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Siemens, 2013: 같은 곳).

마지막으로, 니체주의 모델은 네 번째 문제에 대해 답변해야만 한다. 무폐 모델에 가해진 넷째 비판은 다음의 둘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경합을 유지하게 돕는 이론적 장치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획득되는가?’라는 비판이고, 또 하나는 ‘적대(شم멸전) 아닌 경합이 가능한 갈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비판이다. 전자에 대해 니체주의 모델은 경합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 장치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그것의 획득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즉, 주체의 자기 통치와 자기 극복을 매개로 행해지는 타자에 대한 경합적 존중을 내세워 니체주의자들은 비판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니체주의자들의 대응이 성공적인 대응인지는 의문이다. 경합적 존중이 경합적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모든 정치 주체들이 충분한 정도의 경합적 존중 태도를 갖추지는 못할 것이니 필연적으로 특정 주체들은 정치 현장에서 배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니체주의자들은 자신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배제의 문제를 다뤄야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폐가 니체주의 모델의

이러한 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녀는 니체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경합적 존중이 다원주의 세계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덕목'임을 인정하면서도, 경합적 존중만 내세워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무폐, 2020: 47-48). 그녀에 따르면 현실 정치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결단할 "결정의 순간"이 매번 요구되며 모든 정치적 주체들이 경합적 존중을 가진 자들일 수 없으므로 그들을 "배제할 필요"가 요구된다(무폐, 2020: 같은 곳). 그러나 니체주의자들은 경합적 존중을 교육하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결정의 순간', '배제의 필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녀 비판의 요지다.

니체주의자들은 「호메로스의 경합」에서 등장하는 도편추방제로부터 경합 유지 장치에 관한 이론적 요소를 찾아내기도 한다. 니체는 도편추방제가 고대 그리스의 경합 문화가 존속할 수 있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그것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경쟁자 중 한 사람이 싸움의 열기에 달아올라 유해하고 파괴적인 수단을 이용하거나 위협적인 정변을 일으킬 위협이 분명해질 때" 도편추방제는 그를 사회에서 추방하는 "조절 장치"로써 사용됐다(HC, KSA1: 788-789). 니체주의자들은 조절 장치로서의 도편추방제를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억제하여 섬멸전이 아닌 경합의 형태를 취하도록 만드는 이론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니체주의 모델이 도편추방제를 활용할 경우, '정당한 상대방과 적을 구분하고 적을 배제하는 무폐 모델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니체주의자들은 선차적으로 경쟁 상대를 배제하는 무폐 모델과 달리 니체주의 모델은 일단 모든 이에게 경쟁할 권리를 부여하기에 훨씬 포용적이라며 어느 정도는 반박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남은 문제는 경합을 가능케 하는 갈등의 정도에 관한

것으로, 니체주의자들은 경합의 공동체적 측면을 내세워 자신 입장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니체주의 모델은 고대 그리스의 경합은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이웃과의 경쟁'에서 이뤄졌다며 경합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니체를 수용했기에, 공동체의 번영에 해가 되지 않고 이로울 정도의 경합 내 갈등만을 인정할 것이다. 즉, 니체주의 모델은 경합적 경쟁의 한계선을 이론적으로 갖추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니체주의자들의 이러한 대응은 매우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한 상대방과 적을 구분하는 무폐와 마찬가지로 불분명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무폐와 마찬가지로 니체주의 모델은 경쟁이 경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갈등은 어느 정도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두 경합적 민주주의 모델을 소개하고, 두 모델의 한계점까지 살펴보았다. 슈미트에 기반한 무폐 모델은 다음의 네 비판에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그들을 정당한 상대방과 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다. 둘째, 적대의 존재론적 근본성과 적대 아닌 경합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일관적이다. 셋째, 무폐가 말하는 경합은 자기 보존이라는 텔로스에 간혀 있다. 넷째, 경합 유지 수단에 관한 이론적 요소가 없고, 경합을 유지할 수 있는 갈등의 정도에 대한 설명도 없다. 반면 니체주의 모델은 무폐와 사상적 토대를 달리하기에 앞선 세 비판을 피해갈 수 있었고, 네 번째 비판에도 어느 정도 반박할 이론적 힘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니체주의 모델이 무폐 모델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니체주의 모델도 무페와 마찬가지로 ‘경합을 가능케 하는 갈등의 정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좋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무페와 달리 ‘결정의 순간’에 관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비판에도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니체주의자들에게 남은 과제는 자신의 두 한계를 보완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본 논문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본 논문은 많은 니체주의 모델 중에서 코널리와 오웬을 중심으로 다뤘기에, 지멘스와 하탐 등 다양한 니체주의 모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심지어 코널리와 오웬이 푸코에게 영향받은 면모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차후에 설명하는 것이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윤. 2023. 「니체 철학의 사회철학적 재구성 흐름에 대한 비판적 점검: 공동체주의와 대안적 독법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45(1): 1-30.
- 루만, 니클라스. 2020. 『사회적 체계들』. 이철·박여성 옮김. 한길사.
- 콘웨이, 다니엘. 2022. 『니체의 『도덕의 계보』 읽기』. 임건태 옮김. 서광사.
- 무폐, 상탈. 2020. 『경합들』. 서정연 옮김. 난장.
- _____, 2012. 『정치적인 것의 귀환』. 이보경 옮김. 후마니타스.
- 피시킨, 제임스. 2020. 『숙의민주주의』. 박정원 옮김. 한국문화사.
- 슈미트, 칼. 2012. 『정치적인 것의 개념』. 김효진·정태호 옮김. 살림.
- 한상원. 2020. 「포퓰리즘, 데모스, 급진민주주의」. 『시대와 철학』 31(2): 97-134.
- Acampora, Christa Davis. 1996. "Homer's Contest". *Nietzscheana* 5.
- _____, 2013. *Contesting Nietzsc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ugust, Vincent. 2022. "Understanding democratic conflicts: The failures of agonistic theor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pp. 1-22.
- Connolly, William E. 2022. *Identity, difference: Democratic negotiations of political paradox*.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1995. *The ethos of plur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Fossen, Thomas. 2008. "Agonistic critiques of liberalism: Perfection and emancipation".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7. pp. 376-394.

- Kalyvas, Andreas. 2016. "The democratic Narcissus: The agonism of the ancients compared to that of the (post) moderns". *Law and agonistic politics*. Routledge. pp. 27-54.
- Menga, Ferdinando G. 2017. "Conflicts on the threshold of democratic orders: A critical encounter with Mouffe's theory of agonistic politics". *Jurisprudence* 8.3. pp. 532-556.
- Morar, pia. 2022. "Disparate Conceptions of the Agon: Nietzsche and Agonistic Democracy". *Nietzsch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p. 227-246.
- Mouffe, Chantal. 2005. *On the political*. Routledge.
- Nietzsche, Friedrich. 2020.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Bänden*, Colli Giorgio and Montinari Mazzino (ed.). De Gruyter.
- Owen, David. 2002. "Equality, democracy, and self-respect: reflections on Nietzsche's agonal perfectionism". *Journal of Nietzsche Studies* 24. pp. 113-131.
- _____, 2013. "Nietzsche's freedom: the art of agonic perfectionism". *Nietzsche and the political thought*. pp. 71-81.
- _____, 2008. "Pluralism and the Pathos of Distance(or How to Relax with Style): Connolly, Agonistic Respect and the Limits of Political Theory".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0.2. pp. 210-226.
- Paxton, Marie. 2020. *Agonistic democracy: Rethinking political institutions in pluralist times*. Routledge.
- Pearson, James. 2018. "Nietzsche on the Sources of Agonal Moderation". *Journal of Nietzsche Studies* 49.1. pp. 102-129.
- Siemens, Herman W. 2013. "Reassessing radical democratic

.....
니체주의적 경합적 민주주의는 상탈 무폐 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theory in the light of Nietzsche's ontology of conflict".
Nietzsche and the political thought. pp. 83-106.

White, Stephen K. 2022. "Agonism, democracy, and the moral equality of voice". *Political Theory* 50.1. pp. 59-85.

Can Nietzschean Agonistic democracy be a plausible alternative to Chantal Mouffe's theory?*

Kim, Do-Yun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Nietzschean agonistic democracy theory can be a plausible alternative to Chantal Mouffe's model. Agonistic democracy theory has Carl Schmitt or Nietzsche as its philosophical source. In the case of Mouffe, she constructed her model based on Schmitt. However, her Schmitt-based model is vulnerable to four criticisms. First, the distinction between 'worthy opponents' and 'enemy' is ambiguous. Second, it is inconsistent to simultaneously claim 'the ontological fundamentality of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Brain Korea 21 FOUR) funded by the government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in 2020. [Management Number : 4299990214673, Operation Team Name : Project Team to Educate Philosophical Specialists for Conflict Resolution, Department of Philoso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tagonism' and 'agonism without antagonism.' Third, her agonism can not capture the pluralistic world, since it is trapped in the telos of self-preservation. Fourth, there are no theoretical factors to maintain her agonism, and there is no explanation for the degree of conflict that can sustain her model. Unlike Mouffe, Nietzschean like Connolly and Owen provides agonistic democracy theories based on Nietzsche. After analyzing and reconstructing Nietzsche's text and Nietzschean's discussions, I will argue that the Nietzschean model can overcome some thresholds of Mouffe's model.

Subject Sphere: Social philosophy, Political philosophy

Keywords: Agonistic democracy, Conflict, Carl Schmitt, Chantal Mouffe, Nietzsche, William Connolly, David Owen

